

투명·신뢰받는 행정구현 앞장

임실군, 국민신청 실명제 도입·정책과정 지역민과 공유 시스템 구축

임실군이 정책실명제를 통한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구현에 앞장서고 있다.

군은 특히 올해 처음으로 군민이 원하는 사업을 공개하는 국민신청 실명제를 도입해 정책과정을 지역민과 함께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18일 군에 따르면 주요 정책의 책임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정책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공개하는 임실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열었다.

심의위원회에서 군은 '2018년 정책실명 공개과제'로 총 21건을 선정했다.



임실군이 정책실명제를 통한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구현에 앞장서고 있다.

성, 임실 공공도서관 건립, 태조 희망의 숲 조성, 임실치즈테마파크 사계절 장미원 조성 등 미래 지역발전을 주도할 핵심 사업들이다.

또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 중인 다목적체육관 건립, 북부권 생활체육공원 조성, 노인종합복지관 건립, 운암복지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치매안심센터 건립, 임실천변 경관개선 사업 등도 정책실명제 공개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다.

이외에도 교육사업으로는 임실분할 인제학당 운영과 공공도서관 건립사업 등이 포함됐다.

이들 21개 사업은 임실군 홈페이지

(www.imsl.go.kr)를 통해 관련자의 실명과 추진실적을 공개해 투명하게 관리하게 된다.

심 민 군수는 "주요 정책의 수립과 정부 진행상황을 비롯해 추진 결과까지 비공개 정보를 제외하고는 모두 군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며 "정책의 공개에만 그치지 않고 결과도 군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책임 행정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은 2009년부터 매년 정책실명 공개과제를 선정해 이 중 144건을 완료하였으며 48건은 현재 추진 중이다. /임실=진홍영 기자

임실 명소탐방 시티투어버스 운영

20일부터 운영... 한옥마을·임실치즈테마파크 등

임실군은 2018년 전라도 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임실 명소탐방 시티투어버스를 20일부터 운영한다.

이는 임실을 찾는 관광객들이 임실군 대표관광지인 임실치즈테마파크와 주요 관광지를 투어버스를 타고 관광하는 버스투어 관광상품이다.

관광객들은 이제보다 쉽게 적은 비용을 들여 임실을 관광할 수 있다.

임실투어버스는 전주한옥마을을 찾는 전국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한다.

주요 탑승지는 전주고속버스터미널, 전주한옥마을이며, 임실치즈테마파크, 덕치면 구담마을, 김용택시인문학관을 관광하게 된다.

임실치즈테마파크는 전국 최고인 임실N치즈를 체험할 수 있고 다양한 치즈 먹거리와 이국적인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즐길 수 있다.

아름다운 시절 영화촬영지로 잘 알려진 구담마을은 섬진강변에 자리하여 섬진강의 아름다움을 한껏 느낄 수 있다.

김용택 시인이 태어난 진메마을에 있는 김용택 시인문학관을 둘러보고, 마을 앞 느티나무 아래 광장에 앉아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며 도란도란 자연을 노래하다 보면, 어느덧 마음 속에 피어나는 한 편의 시를 가져올 수 있을지도 모른다.

임실시티투어는 남북관광여행사에서 관리운영 중이며, 접수는 여행사 홈페이지(www.nbtour.co.kr)를 통해



서 하면 된다.

남북관광여행사에서는 5월 8일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부모님을 모시고 시티투어를 신청하는 가족의 경우 부모님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심 민 군수는 "전주를 찾은 많은 관광객들이 시티투어를 통하여 임실을 찾고, 임실사람과 임실자연의 넉넉함과 아름다움을 담아가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장원배 전국중고등학교 정구대회

순창제일고 남자팀 준우승·제일고 여자팀 3위

제23회 장원배 전국중고등학교 정구대회 경 제26회 한중일 주니어 경기대회 파견 2차 선발전에 출전한 순창지역 선수들이 고추장의 분향 순창의 매운맛을 전국에 알렸다.

18일 순창군에 따르면 이번 대회는 지난 12일부터 17일까지 6일간 광주광역시 동신고등학교 정구장에서 진행됐으며 순창제일고 남자팀이 4년 만에 단체인 준우승을 차지하며 성적을 거뒀다.

또한 개인 복식에 출전한 1학년 서범규, 설운수 선수는 쟁쟁한 3학년 선수들과의 경쟁 속에서 승리하며 3위를 차지해 한국 정구를 이끌어갈 차세대 스타로 주목을 받았다.

특히 선수 스카우트를 위해 경기를 참관한 대학교 정구 감독들은 향후 "한국정구를 이끌 차세대 선수로 손색이 없다"고 입을 모았다. 또 제일고 여자팀은 단체전 3위와 개인복식에서 조은정·김연화 선수조가 우승을 차지하고

채지수·박지현조가 준우승을 차지했다. 개인단식에서는 김연화 선수가 우승, 채지수선수가 3위를 차지하면서 전국 여고부 최강팀으로 자리를 굳혔다.

순창중학교팀, 순창여자중학교팀도 제39회 회장기 전국정구대회 노메달의 아픔을 떨치고 각각 단체전 3위를 차지하며 기쁨을 같이 했다.

특히 제일고 선수들은 5월 31일부터 6월 4일까지 5일간 순창에서 개최되는 2018년도 한국주니어 국가대표 선발전 출전권을 획득해 주니어 국가대표로서의 가능성도 한껏 키운 상태다.

이처럼 순창지역 정구선수들이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것은 군청 실업팀 창단과 함께 정구장 시설 개선은 물론 동절기 와 우천시에도 정구 연습이 가능한 실내체육관을 갖추고 있는 등 인프라가 큰 도움을 주는 결과로 알려지고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지역 매아리

상무대 육군기계화학교 순창군 문화탐방 본격 추진

상무대 육군기계화학교(학교장 소장 오광세)와 화성방학교(학교장 준장 문성준) 간부와 병사 70여명이 18일 순창을 찾아 전·사적지 및 산업시찰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해 12월 상무대에서 육군기계화학교와 순창군간 '문화관광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자매결연식 이후 연계선상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순창군과 상무대는 간부와 병사의 교육프로그램에 지역의 전적지와 문화탐방코스 방문을 위해서 사전 답사행사 등 지속적 교류를 진행해 왔다.

군은 회문산 같은 전적지와 강천산군립공원을 비롯한 관공지 및 산업시찰코스를 개발해 육군기계화학교를 시작으로 5개 병과학교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 가축재해보험 부담금 지원

남원시가 자연재해와 화재,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가축재해보험 농업인 부담금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18일 남원시에 따르면 기상이변으로 인한 자연재해와 화재, 각종 사고 및 질병 등으로 가축 및 축사피해 발생을 예방하고 보험금 지급을 지원함으로써 축산농가보호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가축재해보험 지원한도는 농가당 400만원 중 보조 300만원, 자부담 100만원 이내로 75%를 지원해주고 나머지 25%는 자부담으로 농가 부담을 경감해주고 있다. /남원=유영철 기자

순창군, 모유수유 교육 '호응'

순창군이 임산부와 수유부를 대상으로 모유수유 교육을 실시해 모유수유의 중요성을 알리고 인식제고를 통한 모유수유 신천을 향상시키는 데 큰 도움을 줬다.

이번 교육은 지난 16일부터 17일까지 임산부와 수유부 51명을 대상으로 보건 의료원 소·대회의실에서 진행됐으며 국제모유수유 전문가를 초청해 임신과 출산과정에서 모유의 생성과 젖 물리는 자세, 엄마젖의 장점 등에 대해 알리는 것은 물론 임산부와 영유아 보호자의 모유수유 개인별 상담도 진행돼 실질적 도움을 줬다.

군은 모유수유 권장을 위해 관내 터미널과 강천산 군립공원에도 모유수유방을 운영하고 있으며 임산부를 대상으로 모유수유 유촉기 무료대여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농기센터, 쌀 품질분석 서비스 무료 운영

남원시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는 고품질 쌀 품질관리를 위해 관내농업인이 생산한 쌀 성분을 알려주는 '쌀 품질분석 서비스'를 무료로 운영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쌀 품질분석 서비스는 성분분석기로 밥맛에 영향을 주는 단백질, 수분, 아밀로스 등 함량을 검사하며, 미립관별기로 정선립, 찌라기, 분상질립 등 외관을 검사 하는 것으로 과학적인 쌀 품질 관리를 위해 실시하고 있다.

쌀 품질 검사를 희망하는 농가는 벼 500g을 깨끗한 봉투에 담아 농업기술센터 쌀 품질 분석실에 제출하면 10일 이내 쌀 품질 분석표를 받아 볼 수

있다. 쌀 품질분석 결과표는 쌀의 품질을 수치화하여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농업인에게 제공되며, 분석자료는 비료비용 절감, 벼품질 향상, 토양 비옥도 관리 등 과학영농 토대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자료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남원시 농업기술센터 담당주무관은 "쌀 품질 분석 서비스 운영으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품질관리가 가능해졌다"며 "앞으로도 선진화된 과학 영농기술로 남원에서 생산된 쌀이 최고의 명품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원=유영철 기자

